

D램, 현물가격 1달러도 붕괴...

8월 하순 0.97달러로 10% 하락 ... SK하이닉스 주가도 하락세

D램 가격이 한 달 사이 10% 가까이 떨어졌다.

전문가들은 D램 가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PC 운영체제인 <윈도8>이 출시되는 10월 이후 상승할 것이라며 관련주식도 한동안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.

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, 8월 하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2Gb(기가비트) DDR3는 0.97달러로 8월 상순 평균 가격인 1.02달러에 비해 4.9% 하락했다.

D램 가격은 7월 하반기에 비해 9-10% 하락했다.

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개인용 컴퓨터(PC) 수요가 부진하고 PC 제조 기업들의 재고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.

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 D램익스체인지는 212년 연간 PC 출하량 전망을 기존의 -0.3%에서 -2.5%로 하향 조정했다. 특히, PC 시장을 이끌어왔던 노트북 수요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.

KB투자증권 변한준 연구원은 "D램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찾거나 제품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"이라며 국내 메모리 제조기업들의 3/4분기 영업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.

교보증권 구자우 연구원은 "D램 가격 하락세가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"고 말했다.

8월 말 SK하이닉스 주가는 2.8% 하락했으며 정보기술(IT) 업종 지수도 2.6% 떨어지면서 코스피(-0.8%)보다 큰 낙폭을 나타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9/03>